



## 잔혹한 4월

4월이라지만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 시즌 초반부터 꼴찌로 추락해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심상치 않다.

KIA는 지난 27일 문학 야구장에서 벌어진 SK와이브스와의 경기에서 1회초 3점을 뽐냈지만 뒷심부족으로 끝내 3-4로 역전패 당했다. 지난 24일 우리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연장 12회 이현곤의 끝내기 안타로 귀중한 1승을 얻은 뒤 의기양양하게 인천행 버스에 올랐던 KIA는 이날 패배로 3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KIA는 5월의 대반격을 노리겠다는, 4월 목표를 1위와의 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으로 삼았다. 하지만 1위팀 SK와의 원정 3연전에서 단 1승도 챙기지 못하면서 선두와의 격차가 28일 현재 무려 12.5게임 차로 벌어졌다. 0.5게임차까지 바짝 쫓아갔던 7위 LG 트윈스와의 3.5게임 차이가 난다. 이대로 가다가는 5월의 대반격은 '기

적'이 될지도 모른다. 개막 후 25경기를 끝낸 28일 현재 KIA는 7승 18패로 승률이 0.280에 불과하다.

자존심을 구겼다. 2005년 개막전 패 이후 3연승을 올리며 패조의 출발을 했던 KIA는 이후 8연패에 빠졌다. 25경기를 끝낸 KIA

### 승률·타율·방어율·득점 모두 최하위

### 2005·2007 시즌 '꼴찌' 때보다 심각

### 근성 실종... '5월 대반격'도 기대 난망

타율 0.246, 평균자책점 4.59, 득점 86 모두 최하위다. 최하위로 시즌을 마감했던 2005년과 2007년과 비교해봐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적이다.

KIA는 2005년 팀 창단 이후 사상 처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며 'V9'의 야구 명가

의 순위는 8위였다. 1위와는 8경기가 벌어졌다. 그레도 9승16패 0.360의 승률로 올 시즌보다는 괜찮았다.

2007년에도 12승13패 0.480의 승률로 5위를 기록했다. 박빙의 순위싸움이 진행되면서 1위와의 격차는 2.5경기에 불과했다.

#### ■KIA타이거즈 개막 후 25경기 전적

	전적	승률	경기차	타율	방어율	득점	최종 순위
2005년	9승 16패(8위)	0.360	8	0.262(6위)	4.58(5위)	102	8위
2006년	12승 12패 1무(5위)	0.500	3	0.243(6위)	3.24(3위)	99	4위
2007년	12승 13패 (5위)	0.480	2.5	0.243(7위)	3.17(1위)	86	8위
2008년	7승 18패(8위)	0.280	12.5	0.246(8위)	4.59(8위)	86	?

타율이 0.243으로 올 시즌보다 좋지 않고, 득점도 86점에 불과했지만 3.17의 평균자책점으로 1위를 달리던 마운드의 힘으로 중위권 경쟁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개막 이후 3연패를 하면서 일찌감치 중위권 싸움에서 배제됐다. 승리 다음 흐름을 살리지 못하면서 2연승이 KIA가 올해 기록한 최고 연승 기록이다. 2연승 이후 KIA는 연패 후 간신히 1승을 챙기는 '공백한'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

그나마 팀을 지탱하던 마운드는 타선의 계속되는 부침과 안방마님 김상훈의 부상 이후 급격히 무너지면서 평균자책점이 4.59까지 솟았다. 개막 한 달도 안돼 리마, 전병두 2명의 선발이 2군으로 추락했다.

팀의 패배가 계속되면서 많은 선수들이 1, 2군을 오르내리면서 KIA는 여전히 '시범경기중'이다.

KIA는 29일 서재응을 마운드에 내세운

#### ■프로야구 중간순위 (28일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승차	연속
1	SK	19	5	0	0.792	0.0	6승
2	롯데	13	9	0	0.591	5.0	2패
3	한화	14	12	0	0.538	6.0	2승
4	삼성	13	12	0	0.520	6.5	2승
5	우리	11	14	0	0.440	8.5	1패
6	두산	10	13	0	0.435	8.5	2패
7	LG	11	15	0	0.423	9.0	1승
8	KIA	7	18	0	0.280	12.5	3패

다. 시즌 2승을 챙긴 윤석민을 내고도 무너진 KIA는 마지막 보루 서재응의 경기에서도 2연패를 끊지 못한다면 5월을 장담할 수 없다. 타선의 비협조로 아직 한국 무대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한 서재응의 어깨에 KIA의 운명이 달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베이징올림픽 야구대표팀

### 2차 엔트리 66명 확정

베이징올림픽 본선에 나설 야구대표팀 2차 엔트리 66명이 확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협회(KBA)는 28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기술위원회를 개최, 예비 엔트리 66명을 발표했다. 이 명단은 지난달 1차 엔트리 100명에서 34명 줄어들었다.

박찬호(LA 다저스), 이승엽(요미우리) 등 해외에서 활약 중인 선수 6명을 포함, 프로선수가 60명, 아마추어 선수가 6명이며 포지션별로 투수 37명, 포수 5명, 내야수와 외야수가 각각 12명씩으로 이뤄졌다.

KIA 타이거즈에서는 서재응·윤석민·한기주(이상 투수), 이현곤(내야수), 이용규(외야수) 등 5명이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신인답지 않은 노련한 투구를 펼치고 있는 정찬환과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때 도핑에 적발돼 2년간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박병환(이상 LG)이 기한 만료로 부활을 받아 이체를 떠났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엔트리를 최종 제출하는 날은 7월20일이다.



“살았다” 28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벌어진 제42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광주 진흥고와 중앙고의 경기. 6회 초 2사 1, 2루서 진흥고 임병훈이 좌중간 2타점 적시타를 치고 3루까지 뛰어 세이프되고 있다. (일간스포츠 제공)

## 진흥고 8강 진출

### 대통령배 고교야구, 중앙고 5-1 제압

광주 진흥고가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중앙고를 5-1로 꺾고 제42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대회 8강에 합류했다.

진흥고는 28일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벌어진 중앙고의 16강 경기에서 임병훈의 결승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2회 선취점을 뺏긴 진흥고는 3회 1점을 뽑으며 동점을 만들어 1-1로 팽팽히 맞섰다.

진흥고는 6회 볼넷 2개로 얻은 2사 1, 2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2번 타자 임병훈이 상대투수 허복을 상대로 2타점 3루타를 날려 전세를 역전시켰다. 다음 타석에 들어선 박상현은 2루타로 1점을 더 보태며 팀의 승리에 쾌거를 박았다.

선발로 나온 김정은은 6과 3분의 2이닝 동안 2피안타 2사사구 7탈삼진의 호투를 하며, 1실점으로 중앙고 타선을 막아 승리투수가 됐다.

진흥고는 30일 오후 6시30분 덕수고 인천고의 승자와 4강 진출을 다투게 된다. 이어 벌어진 경기에서는 천안 북일고가

취문고에 6-1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북일고는 0-1로 끌려가던 8회초 2사 이후 6점을 뽑은 타선의 폭발력에 힘입어 6-1로 이겨 8강에 올랐다.

한편 지난해 우승팀 광주일고는 29일 오후 1시 인천고와 8강 티켓을 놓고 승부를 펼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필러 회원권**

최저 '특필러 회원권'비, 골프회원권에서 활동한 경기장 및 모이레프호텔을 오피스 활용이전 가능합니다. 승주세 및지산 대한민국 최고의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상담 문의 (062)351-0095

## 스콧 연장에서 15m 우승 버디

### PGA 바이런 벨슨 챔피언십

### 위창수 공동 7위 올 첫 '톱10'

아담 스콧(호주·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EDS 바이런 벨슨 챔피언십에서 연장전에 나온 극적인 먼 거리 버디 퍼트로 올해 첫 우승을 신고했다.

스콧은 28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어빙의 포시즌스 TPC(파70·7천168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1오버파 71타에 그치며 2타를 줄인 라이언 무어(미국)와 4

라운드 합계 7언더파 273타로 연장전을 벌여야 했지만 연장 세번째홀에서 버디를 뽑아내 우승을 차지했다.

3타차 선두로 경기에 나선 스콧은 15번까지 버디를 1개 밖에 잡아내지 못하고 무어에게 역전을 당했다. 스콧은 그러나 1타차 단독 선두로 4라운드를 마친 무어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8번홀(파4)에서 버디를 뽑아내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가는데 성공했다.

두차례 연장전에서 승부를 내지 못한 스콧은 세번째 연장전에서 무려 15m 짜리 먼 거리 버디 퍼트가 홀에 빨려 들어가며 짜릿



한 재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2언더파 68타를 치는 선전을 펼친 위창수(36·태일레메이드)는 합계 1언더파 279타로 공동7위에 올라 올해 처음으로 '톱10'에 입성했다.

## 여갑순 1위 '탕탕탕'

###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주부 사수' 여갑순(34·대구은행)이 두번째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힘차게 방아쇠를 당겼다.

여갑순은 28일 경남 창원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의 여자 10m 공기소총에서 399점을 쏘아 1위에 올랐다.

여갑순은 3차 시리즈(10발, 만점 100점 단위)로 전체 격발을 나눈 것)에서 한차례 9점이 나와 만점을 아깝게 놓쳤고 김여울(399점·화성시청)과 접수가 같지만 뒤쪽 시리즈 점수가 높아서 1위로 결정됐다.

그는 지난 3일 올해 처음 출전한 봉황기대회 본선에서 396점을 쏘 상상을 이어가며 베이징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높였다. 여갑순은 서울체고 2학년이던 1992년 베르셀로나올림픽에서 우승하면서 한국 사격에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겼던 스타.

여갑순이 남은 5차례 선발전에서 좋은 기록을 유지하면 여자 공기소총 대표 2명에 포함돼 16년 만에 올림픽 무대를 다시 밟을 수 있다.

한편 전남여고 출신 국가대표 김찬미(기업은행)는 여자 공기소총에서 397점으로 4위를 기록했고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강조현(한화 갤럭시)은 394점으로 20위에 그쳤다.

## 오초아 없으니 소렌스탐 우승

### LPGA 인터내셔널 프로암

### 김영 공동 3위에 그쳐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두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소렌스탐은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 페어몬트 턴베리 아일랜드 골프장 소퍼코스(파71·6천244야드)에서 열린 스탠퍼드 인터내셔널 프로암 마지막 라

운드에서 1언더파 70타를 쳐 72홀 합계 8언더파 275타로 플라 크리머(미국)와 동타를 이룬 뒤 연장 첫번째 홀에서 승리했다.

선두에 2타 뒤진 채 출발한 김영(28)은 버디 6개를 잡았지만 더블보기 2개를 하는 바람에 최종합계 7언더파 276타를 쳐 카리 웹(호주)과 함께 어렵게 공동 3위에 그쳤다.

김영은 2번홀(파5)과 4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역전 우승의 가능성을 높였지만 7번홀(파3)과 8번홀(파4)에서 연속 2개의 더블보기를 저지르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후



반들어 김영은 보기없이 4개의 버디를 잡는 선전을 펼쳤지만 우승 경쟁에서는 멀어졌고 올 시즌 최고의 성적을 내는데 만족해야 했다.

출 증설 계획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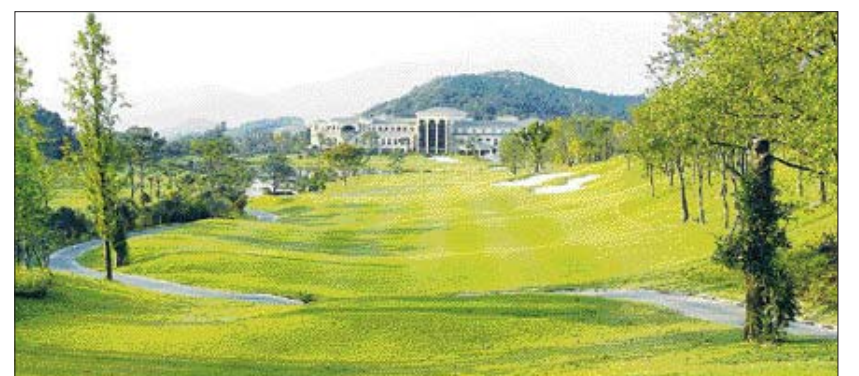
페어웨이에는 푸르름이 오래 지속되는 제니스 잔디를 식재했고, 각 코스마다 아름다운 조경과 특색있고 고급스런 조형물을 배치해 골프장의 품격을 한 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모집되는 주중회원은 2인 회원대우(배우자), 주말 긴급부킹권 부여, 골프클럽 회원대우의 파격적 특전이 제공된다.

입회금액은 3천500만 원이며 모집인원은 100명이다. 입회기간은 2년이며 1년 후 탈퇴 요청시 전액 환불이 된다. 또한 수주정예회원으로 운영돼 부킹이 원활하기 때문에 조기 모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문의) 061-381-0515.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담양다이내스티CC 주중회원 모집



### 동광주C서 10분 거리

### 2인 회원대우 등 특전

담양다이내스티CC가 5월 그랜드오픈을 앞두고 주중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동광주C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담양다이내스티CC는 최고급 마감재를 바탕으로 한 유럽풍의 클럽하우스가 국내 골프장 클럽하우스 시설부분에서 최고로 평가받고 있어 VVIP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다.

세계적 골프장 설계사인 미국의 골프 플랜에서 설계한 코스는 현재 임페리얼과 마제스티코스 등 18홀로 운영되며, 9